

건축문화의 해, 건축가족의 해

The Year of Architecture, The Year for Families of Architecture

남상금 / 남건축사사무소
by Nam Sang-Geum

연일 새 밀레니엄을 맞는 흥분의 소리가 IMF 탈출 선언과 함께 온 땅을 뒤흔들고 있던 지난 세기의 마지막 날에도 나와 직원 한 사람이 지키는 사무실은 여전히 고요하고 나는 손에 잡히지 않은 일들을 늘어놓고 있었다. 꼭 2년 전의 그 참담한 상황을 벌써 잊어버린 듯한 사람들의 흥청거림에 대해 우려하는 소리가 높은 데에도 우린 그저 평범한 해바퀴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물론 작년 건축문화의 해 -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지만 - 에도 문화적인 건축 아니 어떠한 설계 프로젝트도 진행된 것이 없었다.

그런데 나로서는 남다른 건축문화의 해로 기억될 소중한 경험을 간직하게 되었다. 그동안 스스로의 평가를 유보한 채 미루어 왔던 생각을 정리하고 폰 때를 얻었는데, 며칠 전 그토록 기다리던 반가운 전화를 비로소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IMF 바로 직전에 설계하여 작년 5월에야 뒤늦게 공사를 완료한 친척집의 상점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다. 단순히 가족의 즐거운 소식 차원을 넘어 이 소식이 적어도 나에게 소박하고도 특별한 한 사건의 종결이며, 건축문화의 해와 IMF를 기록할 사무실과 나의 건축역사임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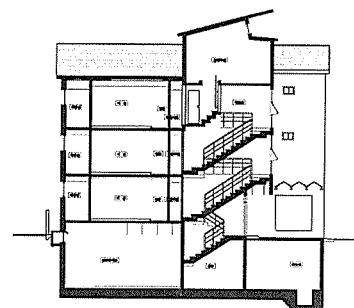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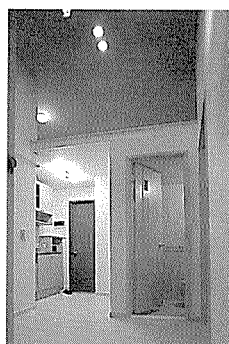
건축가의 금기

오랜 동안 선배 건축가들로부터 들어온

얘기 중의 하나가 있다. 그것은 건축가들 사이에 일종의 금기 사항으로써 말하자면 절대 집안 일에 뛰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축에 종사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닥치게 되고 또 고민하기에 충분한 격언 정도 되는 셈이다. 그것은 아마도 전문인과 비전문인 사이의 이해의 폭을 같이 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누구도 확신하기 어려운 건축의 속성 때문일 것이며, 한편으로 설계자는 그의 책임과 권한을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적어도 가족들한테는 그 결과와 평가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하니 그런 일에 관여하기에 가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1997년 가을, 수원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가까운 친척은 신 개발지에 투자 수단과 노후대책으로 땅을 사서 임대주택을 짓고자하니 다음으로 설계를 의논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 나는 농담 반으로 왜 그 꿍치 아픈 일에 손대려 하나고 반문했지만, 사실 진심으로 한 말이었다.

하지만, IMF 이전에는 적어도 사업적인 면에서 결과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형제들도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때가 오고 나니 나는 정작 그 금기사항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되는 쪽은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가 없으리란 확신이 없으므로 순전히 명예적인 문제의 두려움이다. 해야한다는 쪽은 내가 도와주어야 그래도 더 못되는 결과를 막을 수 있다는 다소



횡단면도

자만스런 직업적인 양심의 발로였다. 물론 만족스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무엇보다도 내가 바라는 건축에 관한 한 나의 가족은 물론이고 대중들에게 훨씬 효과적으로 그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두려움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우리 사회의 건축을 이야기하고 만들어 가는 노력을 거절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겠는가. 그런데 본디 일에 부딪히기를 좋아 하거니와 이런 경우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은 내 성격이라 자연 후자의 태도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언제나 그렇듯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결과의 평가에 대해서는 내 몫이 아닌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가족 설계캠프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신도시 단독주택지 개발 사례의 전형적인 것으로 2~3층에 다가구 주택과 1층에 상점 그리고 지하층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다. 그렇지만 설계란 늘 그러하듯 깊이 파고 들수록 복잡하고 많은 대안이 요구되는 것이니 가 세대의 조합과 상점의 이미지 그리고 빼 놓을 수 없는 예산 문제와 가능한 높은 임대수익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제시되고 해답을 찾는다. 온 가족이 모인 가운데 도면을 펼쳐 보이고 얘기를 나누는 것은 실로 재미있는 일이다. 처음엔 이해 못했던 도면 내용도 거듭할수록 빠르게 파악한다. 대개의 경우 남자와 여자들의 관심은 다르다. 한편 아이들은 스티치폴 모형을 보며 그저 신기해하고 온갖 질문을 다 던진다. 몇 차례의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가족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집을 갖게되는 실감을 느낀다. 어른들의 염려도 커진다.

이러한 과정은 보통 건축설계가 어떠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가에 대한 설계 강의 시간인 셈이다. 반면 그 과정이 생략되었을 때는 어떠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지 또한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를 수용할 만한 충족요건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가 등 설계자의 당위성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계산된 주입식 교육도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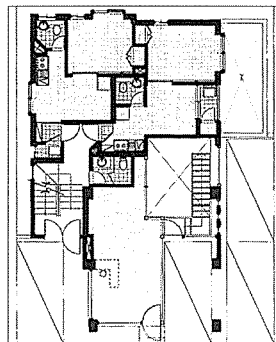
비되었다. 모든 것이 건축 바로 알기 노력의 하나이다.

최종 결정은 역시 건축주가 머리가 아프고 지겨울 정도가 되면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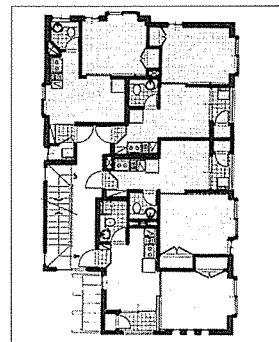
첫 번의 실패

이제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시공사 선정이 그것이다. 원래 이런 것에 관한한 건축주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이므로 설계자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옳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거니와 지칫 반쯤의 성공으로 족해야 하는데 아예 설계부터 관여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마찬가지의 뛰어 들기 고민이 시작되었다. 건축주의 선택 폭을 넓혀 주고자 했던 조언이 지나쳐 어느새 반쯤은 책임을 느껴야 될 만큼 냉정함을 잃고 말았다. 결과를 더 확인해 보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해 결국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 겨울이 닥쳐오므로 계약을 서둘렀고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3주일 후 날벼락 같은 IMF 소식이 전해졌다. 믿지만 예감이 좋지 않았고, 그 파장에 대해서는 막연한 지식으로 희망적인 불안감을 서로 얘기할 따름이었다. 차츰 하루에도 수 십개의 업체가 연쇄 부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더니 드디어 이듬해 봄 절반을 마친 골조공사는 중단사태를 맞고 말았다. 금기의 격언을 가르치기라도 하듯 건축주에게 너무 미안해야 했고 가족들의 근심을 잠재우기가 어려웠다.

곧 재개한다는 친구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공사장은 날로 쓰레기만 쌓여가는 것 같았다. 전세가가 폭락하는 지금 건축주는 집을 완성해도 공사비 지불할 대책이 없었다. 그냥 두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지만 공사장 주변은 어지럽혀 있고 비가 내려 지하실은 수영장이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은 괴로움을 하소연했다. 인부들은 노임도 못 받아서 늘상 사무실로 전화 해서 관계없는 나를 불들고 원통함을 토로했다. 실로 시련이 닥친 것이다. 시공자에게는 종용해 보지만 이미 능력을 상실한 상태여서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어 건축주와 함께 가족들 도움으로 공사장 정리를 하고 지하실 물도 퍼내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야 했다. 그러다가 또 한해가 저물었고 주민들 원성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하는 것도 한계에 이르러 모종의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때마침 풍전등화가 된 건설업계는 노임하락으로 그 지역에서는 저렴한 공사비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이 많았다. 건축주는 결심을 굳힌 듯 직장동료로부터 소개받은 후속 공사자와 사무실을 방문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여겼지만 인테리어나 공사자라는 상대방은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고, 공사비는 터무니없이 낮게 제시되었다. 상상치 않은 결과를 예측케하는 순간이지만 한 번 사고자가 되었으니 너무 깊이 관여하기가 민망하게 되었다. 아물튼 이 심난한 처지에서 하루 빨리 탈출하려면 두 번째의 겨울공사도 불사해야 했고, 또 내년 봄 임대적기에 완성할 수 있었다. 남은 골조공사가 거의 완성될 쯤에는 사람들의 흥을 돋구지 못한 크리스마스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거의 매일을 공사장 출근을 하다보니 이미 감리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참 거꾸집 뜯는 소리가 들려야 할 공사현장이 조용했다.

두 번의 실패

며칠 째 현장사무실 문은 잠겨있고, 인부들은 손을 쭈서 박고 웅크린 채로 책임자를 찾고만 있었다. 책임자는 건축주에게 문서를 보냈다. 설계자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니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으며 정산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똑 같은 상황이 또 한번 발생한 것이다. 하는 수 없이 건축주와 인부들과 함께 떼지어 그 추운 연말에 책임자 집을 찾아 나섰다. 눈이 펄펄 쏟아지는 깊은 밤, 봉고차 안에서 그 집 대문만 바라보고 온다는 사람을 마냥 기다려야 했다. 참으로 나는 금기사항을 배우는데 값을 툭툭히 치르고 있었고, 건축주는 집짓기의 참 현실을 깨닫는데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다. 건축주의 고통과 가족의 실망감은 물론 믿을 사람이 없게된 허탈감은 실로 형언하기 어려웠다. 간신히 IMF가 준 교훈이라고 자위하면서 사태수습을 해야했다. 이쯤 되고 보니 더 이상 체면유지 노력은 불필요하였다. 더 나은 방법이 없겠다는 판단이 섰으므로 급기야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공사 마무리를 하겠으니 건축주는 공사비 준비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집짓기의 즐거움 - 비우하우스를 연상하며

1999년 3월초, 봄기운이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사람들은 제각각 할 일들을 찾아보려고 분주했다. 설계일도 없었으므로 직원들은 오히려 자신이 설계한 작품을 현장 경험을 통해서 완성할 평생 얻기 힘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새벽 6시 출근부터가 설계사무소 생리에 익숙한 것이 아니었고, 모든 결정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었다. 건축주와 함께 직접 집짓기의 체험을 한다는 뜻도 있었지만, 이미 손해가 생긴 부분을 매꾸려고 직원들이 손수 땀을 흘려야 했으며, 건축주는 퇴근하고서 밤에는 뒷정리에 참여했다. 자신의 손때와 땀이 맺힌 건축이야말로 더없는 애착이 될 것이라는 과격한 요청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하게된 것이다. 그러나 건축주는 오히려 모든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결과에 대한 상상을 해가며 예전에 못 느낀 집짓기의 즐거움을 한껏 맛보는 것 같았다. 그 식막할 것만 같은 공사현장의 분위기가 서로의 약속과 이해를 높혀 가려는 노력 끝에 즐거운 일터가 되었다. 참으로 삶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적나라한 공사현장, 우리 사회의 빈틈으로 얼룩진 곳, 그러나 다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를 한 없이 보여주는 곳이다.

연결 안되는 끊긴 필름 조각들

예상외로 품이 많이 들어 태산 같은 고민을 하는 목수 반장, 도면 잘못으로 난간을 다시 고쳐야 하는 철물 제작자, 벽 위치가 바뀌어 벽돌을 헐고 다시 쌓는 벽돌공과 스위치와 콘센트를 다시 매입하며 찌푸리는 전공, 콘크리트 벽이 틀어져 하루 종일 시끄러운 기계소음과 먼지로 시름하는 우리 직원, 붙여 놓은 타일을 밟아서 투덜대며 다시 붙이는 타일공 아저씨, 다른 작업이 안되서 일을 못하겠다고 망치만 들고 불평하는 설비 배관공, 일 같지 않은 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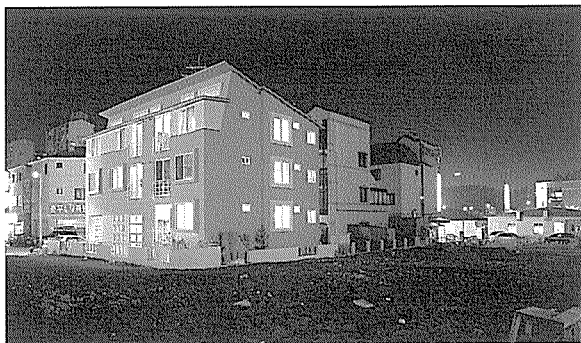


라고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유리공, 라면 먹을 시간도 없다고 재촉하는 미장공, 색상결정이 늦어져 하루 품 깨졌다고 나중에 보상하라는 페인트공, 수직선이 안 맞은 창틀을 기어코 우기더니 검측 해보고야 견연찍어 하는 새시공, 위험하니 내려 오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비계줄 타고 다니며 검사하는 우리 직원, 비계에서 떨어져 부러진 이 치료비 달라고 버티는 목수, 안보이면 담배 피우고 보이면 대충하는 청소 인부, 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는 옆집 할머니, 지난 번 달아난 인부들이 외상으로 먹은 식사비와 철물 값 달라고 아우성인 아줌마 아저씨, 집세가 너무 비싸다는 복덕방 아줌마, 이사 날짜가 내일 모레인데 다 되겠냐고 수 십번 되묻는 입주 예정자 아가씨, 자기 집 좀 수리 하는데 부족하다며 모래와 시멘트 빌러가는 전혀 모르는 아저씨, 집 구조가 좋다며 자기 땅에 똑같이 설계할 때 설계비가 얼마나고 묻기만 한 황당한 건너편 땅주인, 고철 무게 달아서 돈 주겠다고 몇 포대 차에 싣고 가서는 소식 없는 고물수집상, 일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충고하는 제법 똑똑한 인력 시장에서 온 친구, 나는 언제 이런 집에서 살아보나 하고 풀 죽은 젊은 신혼의 목수 조수.....

건축 의미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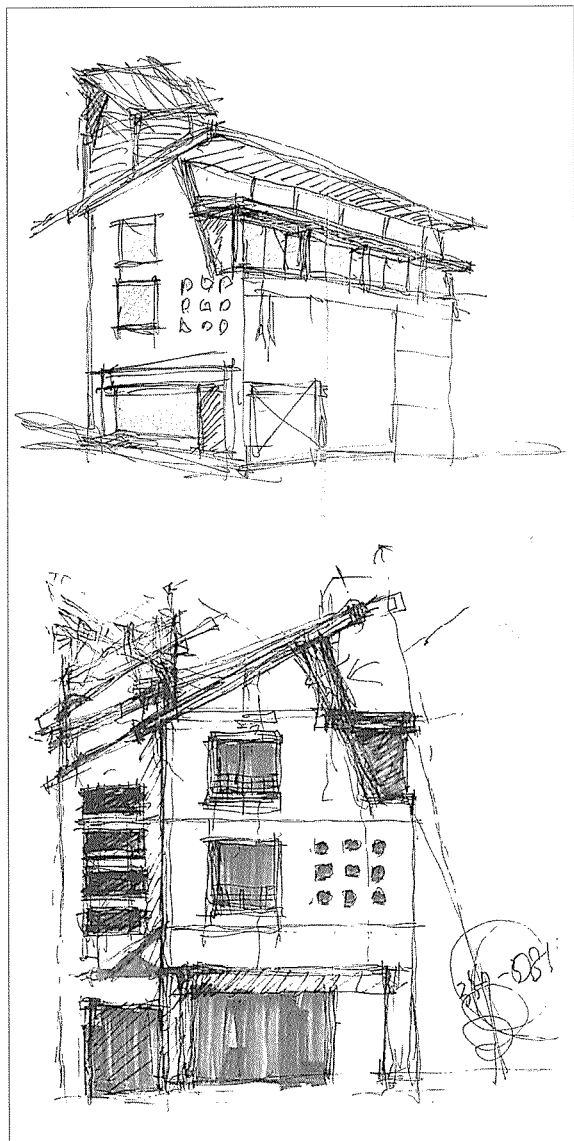
다행히 공사 완료 전에 10가구의 원룸 임대는 완료되었다. 덕분에 공사비 지불 약속이 지켜졌고, 나는 그것으로 큰 시름을 덜게 되었다. 그런데 1층과 지하층 상점 임대는 어려웠다. 주변에는 빈 상점이 널려 있었고, 침체된 분위기는 좀처럼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은 채 막연한 기대감으로 위안을 삼았다. 사실 건축주는 지하층을 없애려고 제안한 것을 다소 평범하지 않은 구성으로 1층과 지하층을 연결지어 내가 고집을 부린 것이 못내 부담을 떨쳐 버리기 어려웠다.

건물이 완성되어 온 가족이 아직 비어있는 지하실에서 거꾸집에 상을 차리고 벽돌을 의자 삼은 채 고기 파티를 열었다. 가족들의 염려도 이젠 기쁨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리 저리 신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첫 경험인



다락이라는 곳을 오르락 내리락 즐거워하며 제너름의 평을 내린다. 한 쪽 벽면에는 그 동안 눈물어린 과정들을 촬영한 슬라이드를 비춰 보고 이미 오래 전 일 같은 기억 되살리며 건축주와 우리 직원 그리고 가족들이 감회에 빠졌었다. 이 집은 그저 평범한 집이다. 놀랄만한 공간의 감동도 없이 그저 생활에 필요한 것들 세밀하게 조합해 놓은 삶의 도구일 뿐이다. 동네 사람들이 그저 좋게 봐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래서 많이 절제된 설계작품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네 삶의 모습을 진지하게 담아 보려고 애썼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작품 보다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가족들 그리고 직원들도 IMF를 색 다른 기억으로 채우고 있다. 많은 교훈을 안겨준 그 길지 않은 시간들이 이제 보람의 시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다만 그 이후로 헤어져야 했던 모든 직원들과 다시 만나 밤낮을 부대끼는 그런 시간들이 기다려지고, 가족들에게는 좀 더 건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스케치